

통계로 본 OECD 국가와 한국

노동시간

48.9시간 '최장'

재해율

선진국의 32배

GDP 9위, 투자를 1위, 저축률 2위

국내총생산(GDP) 9위, 무역 규모 10위, 1인당 보건비지출액 23위, 저축률 2위, 노동시간 1위.

내년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덩치는 선진국이지만 삶의 질을 나타내는 보건·후생은 후진국이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전가시키는 데는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한국과 25개 OECD 가입국의 주요 경제사회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은 3천7백95억달러로 미국(6조6천3백82억달러) 일본(4조6천5백11달러)에 이어 9위를

지급준비금 2백2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11위를 기록했다. 91~94년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7.26%로 2위인 아일랜드의 4.19%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형적 덩치만 보면 급성장을 한 것이다.

이러한 급성장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온갖 희생을 감수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투자율은 36.8%(92년)로 가장 높았고 저축률도 34.9%로 룩셈부르크 다음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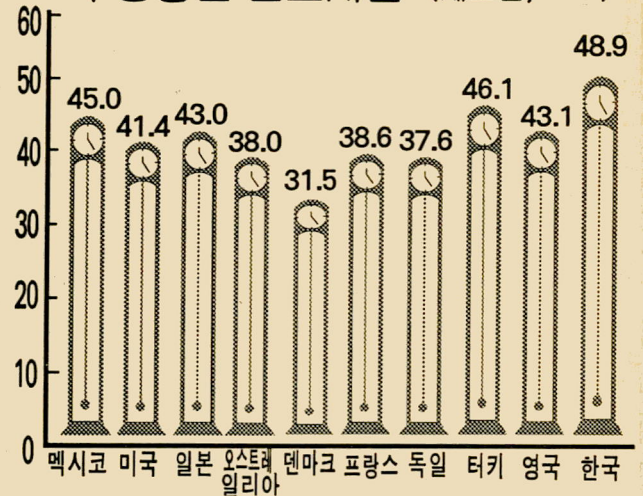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주당 48.9시간(93년) 일을 해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주당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는 덴마크로 31.5시간이며 일별레로 알려진 일본도 43.0시간에 불과했다. 남녀간의 임금격차는 52.2%로 일본(43.6%) 다음으로 격차가 심했으며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70~80% 수

준을 유지하고 있어 우리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 1천명당 산업재해율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0.01~0.0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0.32로 선진국의 최고 32배나 돼 산재왕국이란 말을 실감하게 만든다.

또한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건지출액은 3백65달러(90년)로 이탈리아(4천6백55달러)의 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중 공공지출과 보조는 41.1%에 불과하고 개인지출이 58.9%에 달해 개인부담이 선진국(43~27.3%)의 1.5배~2배에 달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의사수(93년)도 1백17명으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6.2%로 OECD주요국의 2~4% 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전문대 이상의 교육을 의미하는 고등교육취학률(92년)은 캐나다가 98.8%로 가장 높았고 우리나라는 49.3%로 미국 핀란드에 보다는 낮았으나 프랑스(45.6%), 독일(33.3%), 일본(31.5%) 등 주요선진국보다는 높았다. 하지만 교원 1인당 국민학생수는 30명으로 80년의 48명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

주당평균 근로시간 (제조업, 1993)



산업재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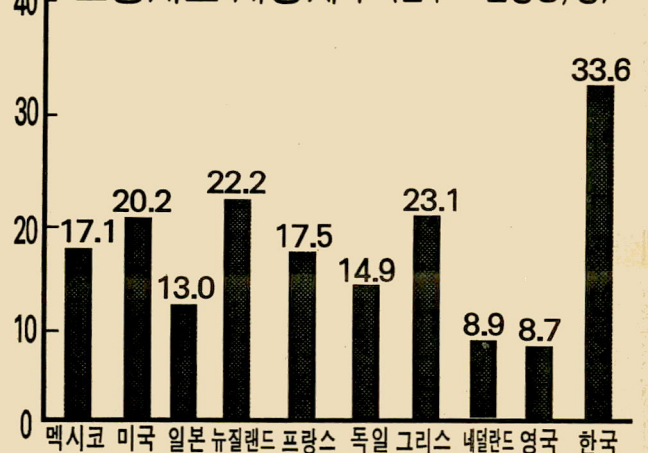
캐나다	0.08
멕시코	0.12
미국	0.02
일본	0.01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0.05
오스트리아	0.07
벨기에	0.06
덴마크	0.02
핀란드	0.04
프랑스	0.07
독일	0.07
그리스	0.05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0.06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0.02
노르웨이	0.03
포르투갈	
스페인	0.11
스웨덴	0.01
스위스	0.04
터키	0.38
영국	0.01
한국	0.32

기록했으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93년도에 7천5백13달러를 기록, OECD국가의 2~3만 달러 수준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무역규모는 10위, 대외

연구개발비 (단위: 백만달러, %)

캐나다	8,512,451	35.5
멕시코	426,684	95.0
미국	135,231,000	45.9
일본	102,231	18.2
오스트레일리아	3,974,942	55.3
뉴질랜드		65.1
오스트리아	380,886	43.4
벨기에	3,248,124	27.6
덴마크	2,204,124	27.6
핀란드	2,515,331	44.3
프랑스	28,906,258	48.8
독일	33,973,936	34.1
그리스	130,953	74.4
아이슬란드	54,749	70.0
아일랜드	283,549	46.1
이탈리아	14,190	51.5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5,552,228	44.8
노르웨이	1,944,053	49.5
포르투갈	365,010	58.1
스페인	4,177,663	45.1
스웨덴	6,837,867	35.7
스위스		
터키	798	70.1
영국	21,066	34.2
한국	6,391	17.2

교통사고 사망자수 (인구 10만명당, 명)



국 등 선진국이 99.7~93.1명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101.4명으로 남자가

최대흑자국은 일본이고 최대적자국은 미국이며,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벨기에(109.3

보건지출액 23위, 이태리 1/13 수준 물가상승률 6.2%, 선진국의 3배

나 선진국의 10~20명 수준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다. 교원 1인당 고등교육학생수도 34명으로 선진국의 10~20명에 비해 아주 낮다.

연구개발비(92년)는 총 6백40만 달러로 미국(1천3백52억 달러)의 0.004%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정부지출은 17.2%에 불과해 선진국(34.1%~51.5%)에 비하면 부담을 주로 민간부문에 떠넘기고 있다.

이밖에 주요지표를 보면 평균수명은 일본인이 78.7세로 가장 길고 남녀간 수명차이는 우리나라가 8년으로 가장 크다. 여자인구 1백명당 남자비율을 나타내는 남녀 성비는 미국 영

약간 많았다. 그러나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출생성비는 대부분의 나라가 자연적 출생성비인 105.0명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5.6명으로 남아선호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자동차생산은 미국이 총 1천2백27만대를 생산하여 선두를 지키고 있고 일본이 1천55만대를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백31만대 생산으로 6위이나 천명당 보유대수는 1백20대로 23위에 머물고 있다. 천명당 트랙터 보유대수는 11.2대로 선진국의 1천대~2백대의 1%~5%에 불과하다.

잘 알려진 것처럼 경상수지

%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일본(14.3%)과 미국(16.7%)이다.

영국은 8만7천종의 책을 발간(92년)하여 2위 독일(6만7천종)을 크게 앞질렀다. 관광객수는 프랑스가 가장 많았고 관광수입(92년)은 미국이 5백39억달러로 2위 프랑스(2백50억달러)보다 두배 이상 많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와 프레온가스 배출량은 미국 일본 독일 순이어서 선진국일수록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다.

인구 10만명당 AIDS감염자수는 미국이 1백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송영민 기자〉